

## 생성형 AI 시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업무 파트너가 된 인공지능

정 영 조 / KT 상무

본 강연은 현대 과학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의 본질을 '수학적 거리'라는 직관적인 개념으로 풀어내며 시작합니다. 단순한 확률적 예측 도구였던 AI가 어떻게 맥락(Context)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Reasoning)을 거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Agentic AI)로 진화하며 우리의 진정한 업무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 기술적 변곡점을 짚어봅니다.

특히 디지털 스크린을 넘어 실제 물리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피지컬 AI'의 시대를 맞아, 전문가의 '실패 데이터'가 갖는 독보적인 가치를 논의합니다. 최종적으로는 AI가 단순 업무를 넘어 창의성과 AGI(인공일반지능)의 영역을 엿보는 시대에,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역할과 그에 따라 변화할 전문직의 미래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학력 및 경력

- \* KAIST 경영공학 박사(플랫폼 전략), 석사(이커머스/생산) 및 산업경영학 학사
- \* KT 전사혁신(Design Thinking) 및 플랫폼 신사업 개발 담당
- \* 전사 빅데이터 자원 자산화 및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수행
- \* 교육 및 의료 섹터 AX(AI 전환) 사업 모델 개발 총괄
- \* 현, 공공분야 정보통신·교육·의료 섹터 AX 사업 총괄  
AI 비즈니스 전략 및 데이터 거버넌스 분야 전문가